

令和 5 年 度

前 期 日 程

韓 国 語 問 題

(注 意)

1. 問題冊子及び解答用紙は、試験開始の合図があるまで開いてはいけない。
2. 受験番号は、各解答用紙の受験番号欄に正確に記入すること。
3. 問題冊子のページ数は、表紙と白紙を除き5ページである。脱落している場合は直ちに申し出ること。
4. 解答用紙は表紙を含めて4枚である。
5. 解答は、解答用紙の指定されたところに記入すること。枠からはみ出してはいけない。
6. 問題冊子の余白は、適宜下書きに使用してよい。
7. 解答用紙は持ち帰ってはいけない。
8. 問題冊子は持ち帰ること。

I.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

연어라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1]가 헤엄친다. 그림 인공지능(AI) 세계의 이야기다. 얼마 전 누리꾼 사이에서 그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강에서 헤엄치는 연어’(salmon swimming in the river)를 (a) 입력하면 생물체로서 연어 모습이 아닌 회 뜬 연어 이미지만 출력된다는 사실이 화제였다. 아무리 인공지능 프로그램 회사를 달리해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생선’처럼 (b) 비슷한 뜻의 다른 문장으로 ①대체해도 인공지능은 생명체인 연어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림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의 설명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해당 이미지를 자동 출력해주는 기술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예술대회에서 우승해 미술의 ②정의와 기술 실업 (c) 논란을 일으킨 미드저니(Midjourney), 고품질 만화풍 이미지로 인기인 노블에이아이(NovelAI)가 있다. 나는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 텍스트만 입력하면 무료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딥에이아이(DeepAI)와 힙노그램(Hypnogram)을 이용했는데, [2] 연어가 ③멸종돼 있었다.

‘슈뢰딩거※1의 연어’라고 부르면 될까? 죽은 상태인데 헤엄치며 살아 있으니 말이다. 방사능 피폭으로 머리가 두 개인 물고기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사람을 삼키는 어류를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3]과 공포다. 단지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생긴 ‘작화 붕괴’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을 딥러닝(심층학습)한 결과여서다. 지금 지구에서 고기가 아닌 물살이로서 존재하는 연어는 얼마나 될까? 나는 이번엔 연어의 본래 속살 색깔이 선홍색(salmon)이 아니라 흰색임을 알았다. 시중에 팔리는 연어의 색은 자연 상태에서 크릴새우를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발색제를 첨가해 ④사육한 모습이란다.

연어 이미지는 이제 ‘보정’됐다. 칼럼을 쓰는 시점에 다시 그림 인공지능에 헤엄치는 연어를 입력해보니, 선홍빛 잔상은 있어도 확실히 연어 본연의 몸 이미지가 출력된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는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연어 이미지는 화제가 되어, 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에 연어 이미지 데이터와 (d) 명령을 학습시켰음에도 며칠 걸려 보정됐다. 알파고※2 이후 바둑 선수는 인공지능에 체점받는 [4]가 됐다는 누군가의 (e) 녀두리처럼, 곧 그림 인공지능이 ⑤보편화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그 인공지능을 통제하기보다 설득하고 읍소를 거듭해야 겨우 바로잡힐 디스토피아가 어른거린다.

사이버 메모리에 방류되는 빅데이터의 상수원은 우리 자신이다. ‘손질’된 [5] 겨우 해엄치는 연어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⑥진화한 존재일 뿐이다. 이제 인공지능 앞에서는 《 I 》됐다.

※1 슈뢰딩거 : Erwin Schrödinger (1887-1961) 오스트리아出身の理論物理学者。量子力学に関する思考実験「シュレーディンガーの猫」などで知られる。

※2 알파고 : AlphaGo. Google傘下のDeepMindが開発した、人工知能囲碁プログラム。

【도우리(2022)「AI는 못 그리는 ‘살아 있는 연어’ [그림 인공지능 증독기] 인간 세상을 덩그러니한 AI 의외의 허점」『한겨레21』1436호, 한겨레신문사】

問 1. _____部 (a) ~ (e) の発音を例にならって発音どおりに書きなさい。
(例 : 단어→다너)

問 2. _____部 ①~⑥を漢字で表記しなさい。(旧字体、新字体は問わない。)

問 3. [1] - [5] を埋めるのに最も適当な語句を次の語群の中からそれぞれ選びなさい。

- [1] 로봇, 살코기, 초밥, 상어
- [2] 뜻밖애, 결코, 때때로, 역시나
- [3] 억겨움, 그리움, 미움, 날카로움
- [4] 신세, 대세, 전세, 연세
- [5] 바, 자, 채, 지

問 4. 《 I 》に入るのに最も適切な表現を次から選び、選択肢の数字を答えなさい。

- ① 옆구리 찢러 절받게
- ② 찬물도 못 마시게
- ③ 누워서 떡 먹게
- ④ 병 주고 약 주게

Ⅱ. 次の文章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

文字を読めない母親は、廃品の品目や数量や単価の計算から、個別的な交渉に至るまで一手に引き受けて切り盛りせざるをえなかった。そのために母が考案したのは、日本語の文字を母だけにわかる記号に置き換えて暗記することだった。母のずば抜けた記憶力は、文字が書けないハンデを補おうとする必死の努力の成果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こうして我が家の廃品回収業は、少しずつ軌道に乗ってい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日本が朝鮮戦争を「天佑神助」として戦後復興のキッカケをつかみ、やがて高度成長の軌道に乗りはじめた時代と重なり合っていた。

その中で思い出深いのは、軍刀や鉄兜などの戦闘用具が、廃品として大量に我が家の前に高く積み重ねられたことである。血のりなどで赤褐色にさびついた軍刀の数々は、わたしの目にも異様に映った。そこには明らかに戦争の臭いがあつた。母親は韓国式の「お祓い」だったのか、塩をあたり一面にふりかけ、何かぼそぼそと念じているようだった。

【姜尚中(2008)『在日』, 集英社文庫】

②

ポジャギに夢中になっている女性にはさまざまな背景がある。

からむし工房の初期からポジャギを習っていた四〇代の女性は国立大学を卒業後、地方公務員となった。仕事内容はハードだが、週末は時間が取れる。三〇代に入る頃まで手芸には縁もゆかりもなかったが、母親の知り合いの紹介で偶然、ポジャギを知った。なぜか心惹かれ、習って一〇年近くになるという。

この女性という。

「好きな仕事をしているとはいえ、職場ではさまざまなことが起こります。役所という世界では物事を進めるとき、法律を解釈し、運用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に介在する人間同士には軋轢もある。思い通りにいかないときにはストレスもたまります」

そんなときに出会ったのがポジャギだった。

「ポジャギには最初から『こ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型がない。これが私にとって最大の魅力。自分の思ったように自由自在に布と布を組み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無心になって縫っているうちに、いつしか心の隙間が埋まっ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のです」

【中島恵 (2009)『ポジャギ 韓国の包む文化』, 白水社】

Ⅲ. 次の文章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①

민중 현실을 다룬 문학이 9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현실의 경제 조건 호전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다. 민중 문학의 현실 토대가 근원적으로 해체되었다거나 혹은 민중 문학 자체가 문학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민중적 전망의 한계 등을 성급히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안목은 80년대 민중 문학이 얻는 문학사의 성과 즉 현실 주의에 대한 인식 심화라든지 현실을 보는 소설 안목에서 민중성을 획득했다든지 역사 변화 주체인 민중의 모습을 문학적 인식망에 포함했다는 성과를 간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중 문학이 쇠퇴한 이유는 ‘민중의 계급 의식과 그 실천’이 이제는 좀더 여러 변수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의식적, 무의식적 압력에 있었다. 즉 민중에 가해지는 여러 억압 기제 중 하나인 계급 착취와 다른 문화적 억압 기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한 민중 의식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기능이 이 소비 사회에 풍부하게 장치되었다. 따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천착 없이는 현실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이는 90년대 초반을 넘길 무렵 상황이다.

【김윤식·김재홍·정호웅·서경석(2001)『우리 문학 100년』, 현암사】

②

팀장은 보고서 파일을 돌려주며 칭찬했다. 계속 지켜봤는데, 기사 선별하는 안목도 좋고 코멘트도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잘해 보라고 했다. 첫 직장, 첫 업무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김지영 씨는 팀장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예감했다. 조금은 뿌듯해하며, 조금은 자랑스러워하며, 하지만 너무 드러내 놓고 좋은 기색은 하지 않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하자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커피는 타 주지 않아도 돼요. 식당에서 내 숟가락 챙겨 주지 말고, 내가 먹은 그릇도 치워 주지 말아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김지영 씨의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동안 신입 사원을 받을 때마다 느낀 건데, 여자 막내들은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귀찮고 자잘한 일들을 다 하더라고.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막내고 신입 사원이라도 시키지 않는 한 할 생각도 안 해. 근데 왜 여자들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조남주(2016)『82년생 김지영』, 민음사】

③

특 튀어나온 동그란 두 눈, 굳게 다문 입, 병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머리, 구부정한 자세에 한쪽 어깨는 치켜올리고 굳게 움켜쥔 두 손으로는 배를 감싸안고 있는 제주의 돌하르방. 구멍이 송송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터라 생김새만큼이나 질감도 독특한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간판 얼굴로 자리 잡고 있다.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의 돌하르방은 오래전부터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말이었는데 1971년 제주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면서부터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中略)

돌하르방을 육지 장승과 비교해보면, 장승의 경우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손의 표현이 생략되게 마련인데 이에 반해 돌하르방은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일정치는 않으나 반드시 두 손으로 가슴이나 배를 감싸고 있다. 또한 돌하르방은 모두 수염이 없으며, 입을 다물고 있어 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8) 『답사여행의 길잡이 11 한려수도와 제주도』, 돌베개】